

미륵사지 가을밤 빛으로 수놓다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성료... 약 16만명 방문 공간 확장·콘텐츠 다양화·상시형 운영 등 새로운 시도 '큰 호응'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은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야간문화관광 콘텐츠의 전국적인 명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약 16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년의 빛, 1400년의 미륵사지를 탐험하다' 주제 개최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공간 확장과 콘텐츠 다양화, 상시형 운영 전환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관람객들이 백제 유산의 고유한 매력을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했다.

석탑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강당지와 연지, 목탑지, 미륵산 숲 등으로 확장하고 각 구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전시로 구성해 미륵사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넓어진 행사장은 관람객들의 체류시간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과 목탑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레이저아트쇼는 화려한 연출과 감각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최초의 레이저아트쇼는 미륵사지의 웅장한 건축미와 조화를 이루며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빛과 소리로 재해석했다.

특히, 미륵사지를 단절하던 대형 스크린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목탑지에



익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약 16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설치된 융복합 미디어파사드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레이저 아트쇼와 함께 기존 드론 라이트쇼를 대체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석탑 뒤 강당지를 활용한 융복합 소리 콘텐츠와 △LED 미디어벽 △미디어 폭포와 반딧불 정원 △유명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마련된 상상 사파리 경관 등 자연에 더해진 환상적인 빛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일에도 주말과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시형 운영 전환도 올해 큰 차별점 중 하나였다.

상시형 운영은 평일에도 여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방문객수 증가뿐만 아니라 만족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미륵사지를 단순한 주말 행사 장소에서 벗어

나 일상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방문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푸드트럭을 배치하고, 플라마켓을 운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썼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매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2021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개최됐다. 익산의 대표 야간 문화관광 행사로 자리 잡아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신동진 쌀, 몽골 첫 수출길 올라

군산 대야농협, 선적식 진행... 쌀 360톤 수출 개시

군산시의 자랑인 신동진 쌀이 2024 식량작물 수출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7일 몽골로 향하는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하 센터)는 대야면에서 생산한 360톤의 신동진 쌀을 90톤씩 총 4회 중국을 거쳐 몽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첫 수출과 함께 성공적인 수출을 기념하는 수출 선적식은 대야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수출된 쌀은 군산 대야농협에서 엄격하게 생산관리한 '일년내내 신동진'이라는 브랜드로 1kg, 4kg, 10kg 등 다양한 포장 규격으로 판매하여 해외동포 및 쌀을 주식으로 하는 세계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출은 국산 쌀의 과잉 생산과 국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인한 가격하락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농협,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대야농협이 적극나선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센터는 이런 수출 활성화 노력의 결과로 군산쌀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출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몽골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K-FOOD의 대표인 군산 쌀의 우수함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상품과 판로개척 등을 고심하며 쌀 품질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 행사 개최

11~12일 은파호수공원 일원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

군산시가 오는 11일과 12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으로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무대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펼칠 예정이다.

'평생학습으로 잇다'는 △배움·성장·공유(나눔)를 통해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평생학습의 가치 소개 △평생학습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성과를 공유

하고 즐기는 자리를 의미한다.

시는 방문객들을 위해 개막식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평생학습성과 발표회,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 행사를 준비했으며, 35개 체험부스에서는 관내 대학교, 동네문화카페, VR 체험 등 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방(<http://ll.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군산시교육지원과(063-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문화유산야행, 세계대회서 인정 받아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24년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본선(IFEA World)에서 군산시의 '2023년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Best Children's Programming) 부문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태국 파타야시에서 개최된 피너클 어워드 아시아 대회 수상 이후 두 번째이다.

이번 본선 대회는 전 세계 4대륙 11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군산시는 본상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에서 여러 축제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금상인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축제들이 은상, 동상을 휩쓸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다.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어 직접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2023년에 이어 올해 야행에서도 구 군산세관 본관 등 문화유산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직접 문화유산을 해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대회까지 진출하여 금상을 수상하여 영광"이라며,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진한 야행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신청하여 세계 축제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최하는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 축제 올림픽으로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시상하는 대회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내 정상 골프 여제들, 익산으로 집결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2라운드' 무료 입장

익산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2라운드 무료 입장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은 오는 10~13일 4일 동안 익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 중 10~11일 열리는 1~2라운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입장은 올해부터 10월 3일로 변경된 첫 익산 시민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어 주말인 12~13일 열리는 3~4라운드의 경우 일일권 2만 원을 구매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유료 입장권 구

매자에게는 사은품으로 우산을 증정한다.

또 '미륵사지 홀로 명명한 11번 홀'에서도 별도 이벤트가 준비됐다. 11번 홀에서 나온 버디 숫자에 따라 쌀을 적립해 익산시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챔피언 이정민·이기영·방신실 프로를 비롯해 김수지·박주영·장수연·지한솔·윤민아 프로 등이 속한 동부건설 골프단, 박지영·박현경 프로 등이 속한 한국토지신탁 골프단 등 KLPGA 프로 108명이 참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교향악단, 송년

음악회 시민연주자 모집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준비를 위해 11일까지 '시민연주자'를 모집한다. 시민연주자와 함께한 음악회는 2023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큰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평소 꿈꾸던 무대에 서게 되어 감격스러웠다"며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에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코자 2024년 송년음악회에서도 시민연주자를 모집하여 군산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갖기로 결정했다.

군산시립교향악단 150회 정기 연주회 송년음악회는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모집분야는 현악부(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부(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타악부다.

오디션 일정 및 자세한 접수 방법은 군산시 또는 군산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매주 금요일은 남중동에서

'버스킹&별별 플라마켓'

익산시가 남중동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남중동 신청사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행사로 '남중 버스킹'과 '와라~와라 남중으로 별별 플라마켓'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점시설을 활용한 남중동 상생협약사가 상생마당에서 10월 11일~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지역예술가들이 선보이는 밴드 공연, 창작곡악, 팝페라 등 문화공연과 플라마켓을 연계해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익산시 신청사 도안 색칠하기,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남중동 주민협의체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